

# ‘광주 2025 문화중심도시’ 민관정협 출범

### 市·문화전당 등 기관·단체 참여 참여 주체 협조·협력사업 발굴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이룰 민·관·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2004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시작 이후 사업 참여 주체인 민·관·정이 함께 하는 첫 협의체 구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정착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사업 주체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협의체는 설명했다.

민·관·정 협의체는 광주시를 비롯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정상화 시민연대, (사)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관광재단, 지역 국회의원 등 9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내에 조성사업에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소통·협력하는 내용이 담긴 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민관정협의체 출범식이 지난 22일 오전 전일빌딩 245에서 열렸다. 민관정협의체는 지역 시민단체, 관련 기관, 지역 국회의원 등 9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조성사업 참여 주체간 신뢰에 기반한 협조체계 구축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필요한 자원 확보 ▲성과 가시화를 위한 정책 개발 ▲조성사업 참여 주체간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

성사업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법 연장 이후 지난 1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출범하고, 2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후 처음으로 전당장이 취임하는 등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여수박람회장 활성화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 전남’ 조성

### 전남도, 개장 10주년 기념식 10일간 공연·댄스 등 다채

전남도가 올해로 개장 10주년을 맞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활성화시켜 미래 비전인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박람회장 관리 주체와 사후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남도는 23일 “여수세계박람회장 개장 1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22일 해양수산부, 전남도, 여수시 공동 주최로 열린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주철현·김희재 국회의원, 서동욱 전남도지사, 강동석 전 박람회조직위원장, 여수시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 10주년 기념동판 제막식,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맞이 홍보 영상·해군장대 공연이 곁들여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 깃발 입장, 미디어 퍼포먼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식에서 “전남은 환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관문으로서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을 위한 도약을 준비 중”이라며



22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홍중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주철현·김희재 국회의원, 서동욱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강동석 전 박람회조직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통해 국내 관광 1억 명 시대를 활짝 열고, 해외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까지 이어지는 10주년 기념행사는 플라잉 워터쇼, 공연예술페스타, 청소년 댄스 스트릿 등

공연과 친환경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사진·포스터 공모전 작품 전시 등이 열린다. 시민이 참여하는 상이계인 여수, 자원봉사자 결의대회, 탄소제로 예코 플로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방문의 해 맞이 수학여행단 유치 쟁결음

### 부산교총·충남도교육청 등 교원 초청 남도답사 추진

전남도와 전남도관광협회가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직원에 대한 남도 답사 유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학여행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25-27일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원 100여 명을 초청하고, 28일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장, 장학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남도 수학여행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지역 교직원 100여 명을 초청, 지난 20일까지 3일간 남도답사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순천만 국가정원, 신안 퍼플섬, 목포 해상케이블카, 진도 윤림산방, 해남 우수영 국민관광지, 강

진 백운동정원, 보성 대한다원 등 우수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식당·숙박, 도 수학여행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학여행 최적지임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해제가 시작된 올해 4월부터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 수학여행 홍보 책자를 발송했다. 특히 교육청, 교사, 여행업체 등으로 구성된 수학여행단 유치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수학여행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수학여행 유치는 학생이 관광을 통해 전남을 이해하고 미래 잠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정경, 안심 관광지이자 수학여행 최적지인 전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선비정신 체험으로 청렴문화 확산

### 공공기관 정약용 사적·고택체험

전남도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올해 처음 추진한 선비문화 체험행사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청렴의식 고양과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청렴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체험행사에는 전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지역 공공기관 청렴업무담당자, 기관 추천 대상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지역의 의미있는 사적과 전통문화 속 청렴문화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강진의 정약용 관련 사적 방문과 김병조 조선대 특임교수의 청렴강의, 백운동 정원 체험, 보성의 의병역사 박물관, 고택체험 등이다.

문화체험을 통한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양은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청렴이 주는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렴과 청빈, 예의와 엄지, 책임의식 등으로 상징되는 선비정신은 오늘날 청렴한 공무원에게 시사점이 많다. 또 전남지역에는 순천의 팔마비, 강진의 다산 사적, 장성의 박수관백비, 해남의 녹우당, 장흥 위씨마을을 비롯한 중가 고택 등 청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적이 풍부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취소하라”

### 광주시의회 성명

광주시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고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김홍빈 대장의 동반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큰 힘이 됐고 전 세계의 귀감이 됐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1등급 체육훈장인 정동장을 추서했다”며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그의 삶과 도전은 개인 영달이 아닌 국민의 꿈과 희망을 뛰어넘은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시의원들은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해 7월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쓴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을 지난달 광주산악연맹을 상대로 청구했다”며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도 그의 삶, 당시 상황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선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 위난상황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 조력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내일 전환 아카데미’ 개소...차·가전 고용안정 지원

자동차·가전 관련 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일 전환 아카데미’와 북구 취업 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개소한 이들 시설은 광주시, 북구, 광산구가 참여해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의 하나로 문을 열게 됐다. 북구 중흥동 삼산빌딩 3층에 마련된 내일 전환 아카데미는 자동차·가전 산업 종사자들의 이·전직

을 위한 원스톱 교육 서비스를 한다.

아래층에 있는 북구 취업 지원센터는 같은 분야 실직자(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상담을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광산구 취업 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하고 동반성장 하는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